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이란 경제제재 해제의 한국 경제 파급 영향

발행인 : 강인수
편집주간 : 김동열
편집위원 : 주원, 이부형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이란 경제제재 해제의 한국 경제 파급 영향

Executive Summary	i
1. 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 시장 진출 확대 기대	1
2.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의 국제 원유 시장 및 이란 경제 파급 영향	3
3.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의 한국 경제 파급 영향	5
4. 시사점	7

Executive Summary

< 요약 >

■ 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 시장 진출 확대 기대

2016년 1월 16일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 원유 수출이 재개되고 내수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인한 국제 원유 시장 및 한국 경제 파급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의 국제 원유 시장 및 이란 경제 파급 영향

(국제 원유 시장) 이란 원유의 수출 증가로 국제 원유 초과 공급은 더 확대되고 저유가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란 원유 생산량은 2014년 일일 310만 배럴 수준에서 2016년 하반기에는 420만 배럴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란이 경제제재 강화 이전 수준으로 수출을 늘릴 경우, 이란 원유 수출 규모는 2016년 하반기에는 250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제 유가는 하방 압력에 크게 직면하여 최근 배럴당 30달러 초중반 수준인 저유가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 추가 가격 하락을 우려한 OPEC의 감산 조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향후 국제 유가의 향방은 선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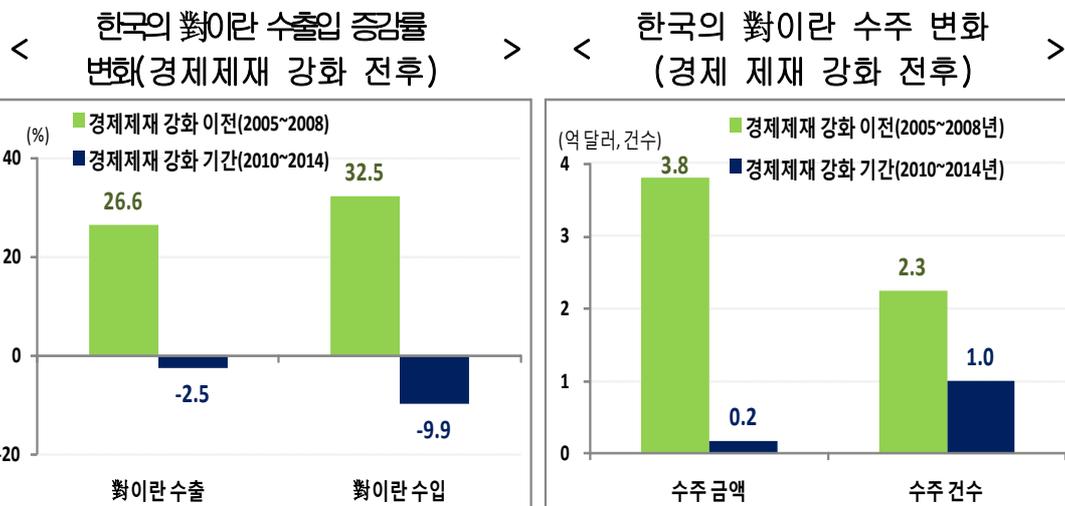
(이란 경제) 이란은 원유 수출 재개로 경제가 회복되겠지만, 저유가로 인해 회복세는 점진적일 전망이다. 경제제재 강화 이전 연평균 5.7%씩 성장했던 이란 경제는 제재 강화 기간 중에는 연평균 5.0%씩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제재 강화 이전에 비해 이후에 약 8%p나 더 높게 상승하였다. 향후 제재가 해제되면 원유 수출길이 열리면서 급락한 수출 증감률은 반등할 것이다. 원유 수출에 의한 수익이 GDP의 약 17%를 차지할 만큼 원유 의존도가 높은 이란은 원유 수출 재개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저유가로 인해 회복세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의 한국 경제 파급 영향

(한국-이란 교역) 감소하던 한국의 對이란 수출은 증가하고 낮은 단가의 이란산 원유 수입 확대가 예상된다. 경제제재가 강화되기 이전 연평균 26.6%씩 증가했던 한국의 對이란 수출은 제재 기간 중에는 연평균 2.5%씩 감소했다.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2016년에 對이란 수출은 증가세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중동국 원유에 비해 저렴한 단가의 이란 원유의 수입은 향후 증가할 것이다. 경제제재가 강화되기 이전 연평균 7,600만 배럴씩 수입했던 이란 원유의 국내 수입 규모가 제재 기

간 중에 연평균 6,200만 배럴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연간 약 1,000만 배럴 더 수입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한국의 이란 시장 진출)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이 늘고 이란내 건설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우선, 이란의 수출 제재가 풀리면서 제조업 생산이 늘면 한국의 차량, 철강, 기계류 및 부분품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이란 정부가 향후 의료 시설을 확대하고 서비스 현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증가세를 보인 광학 및 의료용 기기의 수출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란은 원유 생산 시설 확대 및 개보수뿐만 아니라, 토목과 건축 사업에서도 다양한 공종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유지했던 플랜트(산업설비) 부문 외에도 토목과 건축 부문에서의 수주 확대도 기대된다. 한편, 이란은 한류가 확산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 K-product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수출 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무역협회 및 해외건설협회 자료 이용).

주 : 1) 수출입 증감률은 기간중 연평균 증감률. 2) 수주 금액 및 건수는 기간중 연평균.

■ 시사점

첫째, 이란 시장을 선점한 국가들과의 경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금융 지원 및 이란과의 경제 협력 체결 지원이 필요하다. 수출 금융 및 무역 보험 등 금융지원과 함께 건설협력 MOU체결 등 수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의 對이란 투자 진출 기회 모색을 위해 기술과 원가 측면에서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ICT, 문화 부문에서 보유한 높은 경쟁력을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인 진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란산 원유 생산 증대에 따르는 낮은 가격의 이란산 원유를 확보해야 한다.**

1. 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 시장 진출 확대 기대

○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발표

- 이란이 공동행동계획(2015년 7월 14일 타결)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면서 미국과 유럽은 2016년 1월 16일 對이란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
 - 2015년 7월 14일, 이란 군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사찰을 허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란 핵협상이 타결됨
 - 2016년 1월 16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주요 6개국과 지난해 7월 타결한 공동행동계획 의무이행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힘¹⁾
 - 미국 대통령은 對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²⁾, 유럽연합(EU) 외교안보고위대표도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리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에 도달했다"고 발표³⁾
 - 경제제재 해제의 주요 내용은 이란 원유 수출 재개를 중심으로 자동차 및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 중단 해제, 서비스 무역 금지 해제임

○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기대 및 이란 원유의 공급 증대 전망

- 이란은 중동 제2의 경제 대국이며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는 등 향후 이란 시장 진출로 인한 국내 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이란은 중동지역 국가 중 GDP 규모(2014년 기준)는 사우디아라비아(약 7,530억 달러) 다음으로 두 번째(약 4,040억 달러) 수준임
 - 인구규모도 파키스탄(약 1억 8,630만 명), 이집트(약 8,670만 명) 다음으로 7,797만 명으로 많음
 - 미국 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gency)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1,580억 배럴로, 베네수엘라(2,980억 배럴), 사우디아라비아(2,660억 배럴), 캐나다(1,720억 배럴)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을 보임

1)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2016년 1월 16일, "IAEA Director General's Statement on Iran".

2) Whitehouse, 2016년 1월 16일, "The Historic Deal that Will Prevent Iran from Acquiring a Nuclear Weapon".

3) European Union, 2016년 1월 16일, "Joint statement by EU High Representative Federica Mogherini and Iranian Foreign Minister Javad Zar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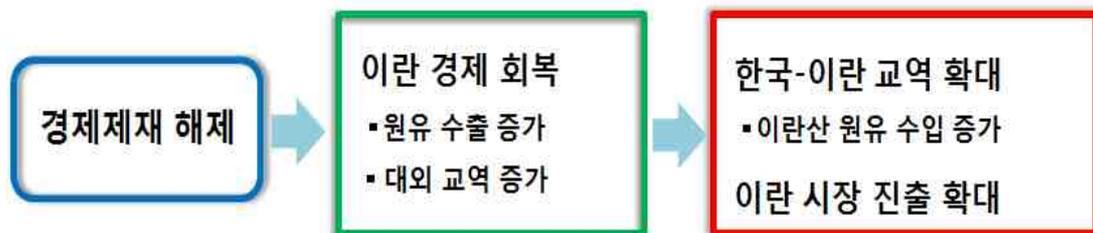
· 또한, 일일 원유 수출량도 110만 배럴로, 사우디(720만 배럴), 러시아(450만 배럴) 등 국가 다음으로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음

-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 및 시장 개방으로 이란의로의 진출 기대감 증대
 - 1970~80년대의 중동붐이 일어나면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에 대한 토목건설 중심의 협력이 증가
 - 1975년 중동에 대한 건설 수주액이 7억 5천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1980년에는 82억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
 - 이번 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건축·에너지·플랜트분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정보기술 및 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로의 진출까지 다변화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

○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인한 국내 경제 파급영향 분석하고자 함

- 이란 원유 공급 확대로 인한 국제 유가 하향세 지속 점검
 - 국제 원유 시장내 초과 공급 및 국제 유가 전망은 해외 기관의 자료 이용
- 한국과 이란의 대외거래 및 이란 시장 진출은 對이란 경제제재 강화 시점 전후의 경제지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
 -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의 경기가 회복되면 對이란 교역 및 이란 시장 진출 경로를 통해 한국 수출 및 산업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 UN, 미국 및 EU를 중심으로 對이란 경제제재가 강화된 2010년을 기점으로 4~5년간의 비교 분석(경제제재 강화 이전 : 2005~2008년 vs. 강화 기간 : 2010~2014년)⁴⁾

<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의 한국 경제 파급 경로 및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4) 2009년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점을 감안하여 분석 기간에서 제외함.

2.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의 국제 원유 시장 및 이란 경제 파급 영향

○ (국제 원유 시장) 이란의 원유 공급이 증대되어 국제 유가는 하락 전망

- 원유 초과 공급 : 이란 원유 수출이 약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원유 초과 공급 확대 예상

-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일일 312만 배럴(경제제재 강화 이전 2005~2008년 연평균 406만 배럴)
- 동 기구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이란의 원유 수출 규모는 일일 111만 배럴 수준으로 경제제재 강화 이전(2005~2008년) 연평균 일일 242만 배럴의 절반에도 못 미침⁵⁾
- 이란 석유장관에 따르면 경제제재 해제시 2016년 하반기까지 일평균 생산량을 420만 배럴까지 150만 배럴 증가시킬 계획⁶⁾
- 이란이 원유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을 경제제재 강화 이전 수준으로 증가시킬 경우 이란의 원유 수출 규모는 2014년 현재 일일 111만 배럴에서 2016년 하반기 250만 배럴로 증가할 전망

- 국제 유가 : 국제 유가는 추가 하락 압력에 직면할 전망

- 배럴당 국제 유가(3대 국제 유종인 Dubai, Brent, WTI의 평균 가격)는 2015년 11월 평균 43.5달러, 12월 37.1달러, 1월 31.3달러로 하락
- 전망 시점별 EIA의 2016년 배럴당 WTI유 가격 전망치는 지난 11월 전망 당시 51.3달러에서 12월에는 50.9달러, 2016년 1월에는 38.5달러로 크게 하락⁷⁾
- 향후 이란 원유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경우, 국제 유가의 추가 하락 압력은 더욱 증대되어 저유가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 다만, 이 경우 가격의 추가 하락을 우려한 OPEC의 감산 조치 가능성도 있어 향후 국제 유가의 향방을 선불리 예단하기 어려움

5)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15년 및 2009년.

6) CNN Money, "Iran sanctions lifted: Brace for oil shakeup", 2016.1.16.

7) 이란 원유 공급 증가는 Dubai유 가격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Dubai유 가격 전망 자료 취득의 한계로 WTI유 가격 전망 자료를 활용.

< 세계 원유 초과 공급 및 국제 유가 추이 >



자료 : EIA(STEO), 한국 석유공사.

- 주 : 1) 초과공급 = 생산량 - 소비량.
- 2) 2016년 1월 초과공급은 EIA 전망이며, WTI는 1월 14일까지 평균.

< 2016년 국제 유가 전망 >

(달러/배럴)

	201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WTI	36.3	38.0	39.7	40.0	38.5
브렌트	36.3	40.0	41.7	42.3	40.1

자료 : EIA(STEO) 2016년 1월.

○ (이란 경제) 이란은 원유 수출이 재개되며 경제 회복이 되겠지만 저유가로 인해 그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

- 대외 경기 : 원유 수출 재개로 수출 증가 및 무역수지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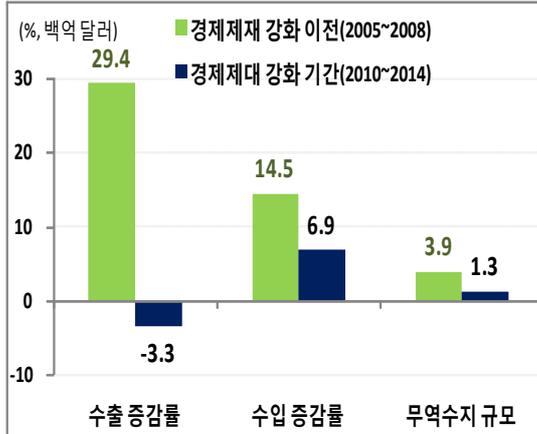
- 이란 총수출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수출 증감률도 경제제재 강화 이후 급락
- 경제제재 강화 이후의 무역수지 규모는 제재강화 이전보다 약 60% 감소한 130억 달러(2010~2014년간 연평균)를 보였으며, 특히 2014년에는 102억 달러 적자를 기록

- 대내 경기 : 점진적인 개선 기대

- GDP와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의 증가율은 경제제재 강화 시점을 전후로 급락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제제재 강화 이전(2005~2008년) 연평균 16.5%에서 강화 기간 중(2010~2013년)에는 24.8%로 상승
- 이란은 원유 수출에 의한 수익이 GDP의 약 17%를 차지하여⁸⁾ 원유 수출 재개로 경제는 회복되겠지만, 저유가로 인해 회복세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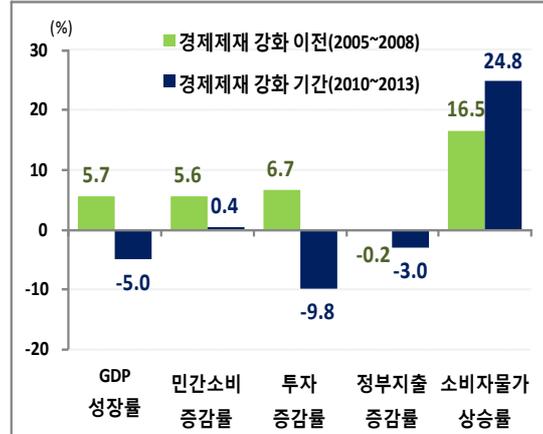
8) IMF에 따르면 이란의 GDP는 2011~2013년 연평균 4,545억 달러, 이란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로 인한 수익 규모는 동기간 연평균 790억 달러임.(자료 : IMF, 2015년 10월, WEO Database ; 미국 에너지정보청, 2015년 6월, 'Iran, International Energy Data and Analysis'.)

< 이란 수출입 및 무역수지 변화 (경제 제재 강화 전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IMF 자료 이용).
 주 : 1) 수출 및 수입 증감률은 기간중 연평균 증감률 기준.
 2) 무역수지 규모는 기간중 연평균 규모

< 이란 주요 대내 경제지표 변화 (경제 제재 강화 전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란중앙은행 자료 이용).
 주 : 1) 연평균 증가율 기준.
 2) 자료 취득의 한계로 2013년까지 계산.

3.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의 한국 경제 파급 영향

○ (한국-이란 교역) 감소하던 한국의 對이란 수출은 증가하고 낮은 단가의 이란산 원유 수입 확대 예상

- 한국의 對이란 수출입 : 증가세로 반등 예상

- 한국의 對이란 수출 및 수입 증감률은 경제제재 강화 이후 급락
- 한국의 對이란 수출입 금액은 2012년 이후로 감소하여 2015년 1~11월 누적 수출액은 34.3억 달러, 수입액은 22.9억 달러를 기록
- 한국의 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對이란 수출입 비중 역시 2011년을 정점(수출 비중 1.1%, 수입 비중 2.2%)으로 하락하여 2015년(1~11월)에 각각 0.7%와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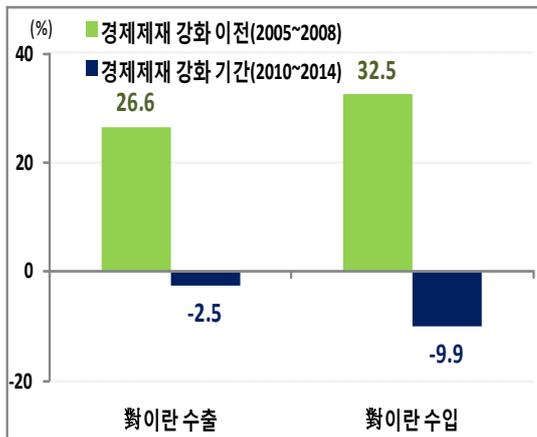
- 이란 원유의 국내 수입 : 낮은 단가의 이란산 원유 수입 확대

- 경제제재 강화 이전(2005~2008년) 연평균 7,600만 배럴이었던 이란산 원유 수입 물량(9)은 경제제재 강화 기간(2010~2014년)에는 연평균 6,200만 배럴로 감소

9) 우리나라의 對이란 총수입 중 원유 수입 비중은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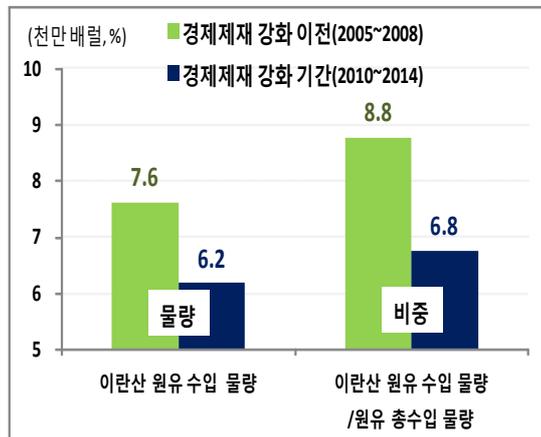
- 對이란 경제제재 강화를 전후로 한국의 원유 총수입 물량 대비 이란산 원유의 수입 비중은 연평균 8.8%에서 연평균 6.8%로 축소
- 이란의 원유는 중동지역 다른 국가의 원유 단가(53.6달러/배럴, 2015년 1~10월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인 51.5달러/배럴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對이란 수출입 증감률 변화 (경제제재 강화 전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주 : 기간중 연평균 증감률 기준.

< 이란산 원유의 국내 수입량 및 비중 변화(경제제재 강화 전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석유공사 자료 이용).
주 : 기간중 연평균 기준.

○ (한국의 이란 시장 진출) 이란에 대한 중화학 공업 부문의 수출 확대 및 건설 시장 진출 확대 기대

- 품목별 수출 : 전반적인 산업 부문의 수출 증대가 기대되지만 특히 차량, 철강 및 기계류 등이 중심인 중화학공업 부문의 수출 확대 기대
 - 경제제재 강화 이후 수출 비중이 하락한 차량 및 부분품과 철강 및 철강 제품의 對이란 수출 증가 기대
 - 향후 이란에서 정보통신 부문 투자 등의 경제개발 정책 시행과 자동차 조립 생산이 재개되면 기계 및 운송류의 對이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란 정부의 의료 시설 확대 및 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투자 증대가 예상됨¹⁰⁾에 따라 광학 및 의료용기기의 수출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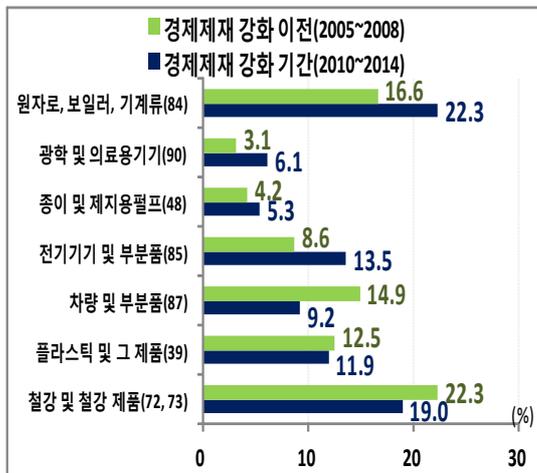
10) 산업연구원, 2013년 7월, '이란 신정부 출범 이후 대이란 교역 전망'.

- 건설 수주 : 산업설비, 토목 및 건축 부문의 수주 확대 기대

- 우리나라의 對이란 수주 실적 건수는 경제제재 강화 이전(2005~2008년)의 연평균 2.3건에서 강화 기간(2010~2014년) 연평균 1건으로 감소
- 수주 금액 역시 경제제재 강화를 전후로 연평균 3.8억 달러에서 0.2억 달러로 급감¹¹⁾
- 에너지 관련 산업설비 프로젝트에 편중된 다른 산유국과 달리, 이란은 토목과 건축 사업의 다양한 공종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¹²⁾ 이들 부문의 진출 기대

- 한편, 한류가 확산되는 이란에서 K-product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수출 기회 확대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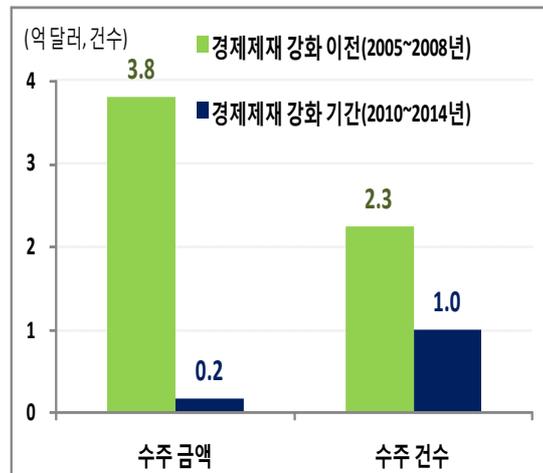
< 한국의 對이란 품목별 수출 비중 변화(경제제재 강화 전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주 : 1) HS 2단위 코드 기준.

2) 한국의 對이란 총수출 대비 코드별 수출비중.

< 한국의 對이란 수주 비교 (경제 제재 강화 전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해외건설협회 자료 이용).
주 : 기간중 연평균 기준.

4. 시사점

- 첫째, 이란 시장을 선점한 중국, 인도 등 국가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對이란 진출 지원책 필요

11) 이란에 대한 수주는 발전소, 정유공장, 화학공장, 가스처리시설, 정유시설, 원유시설 등 산업설비(플랜트)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특히 2012년과 2013년 이란의 토목 및 건축 등 건설 부문 수주 실적은 0건.

12) 한국건설협회, 2015년 4월, '이란 핵협상 타결 따른 이란 건설시장 및 진출전망 분석'.

- 경제제재 기간 동안 중국, 인도 등 국가들이 막대한 국가자본을 바탕으로 이란의 건설, 플랜트 등 시장으로 진출한 상황
 -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현지 유전 개발이나 원유 수입 확대에 대해 지원함과 동시에 수출금융·무역보험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이란 진출기업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
- 둘째, 경제제재 해제 조치가 본격화될 시기를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 이란 투자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함
-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對이란 신규건설수주 실적은 전무한 반면, 중국과 인도 등 국가가 대거 진출하는 등 위협 요소들이 상존해 있으므로 이란시장 진출 시 기술이나 원가 측면에서의 차별화 전략 수립이 필요
 - 보건·의료, ICT, 문화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이를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인 로드맵을 구성하여 추진
 - 이란에서의 한류 확산을 활용하여 관련 소비재 및 문화 상품의 시장 점유율 제고에 주력
- 셋째, 이란 원유생산 증대에 따른 낮은 가격의 이란산 원유를 확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이란산 원유 공급 증대로 유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란산 원유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란 정부와의 외교적 노력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이란의 원유 공급 증가는 우리나라 정유 기업들의 정제 마진 개선과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홍준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조규림 선임연구원 (2072-6240, jogyurim@hri.co.kr)
천용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